

‘가정의 달’ 세대 공감 공연 만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ACC재단이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28일 ‘브런치 콘서트’ 공연을 펼치는 블랙토 무용단의 모습.

〈ACC재단 제공〉

ACC재단, 영화·콘서트·무용 등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다채

내일 영화 ‘국제시장’ 무료 상영
28일 브랜드 공연 ‘브런치 콘서트’
블랙토 무용단, 영화 감동 춤으로
‘라랜드’ 등 OST에 발레 접목

30·31일 뮤지컬 ‘천 개의 파랑’
소외된 이들에 희망 메시지 담아

‘가정의 달’을 연상시키듯 어디서나 나란히 손 잡고 걸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가벼워진 옷차림만큼이나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럽고, 거리는 웃음과 햇살로 물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 ACC재단)이 세대와 취향을 넘나드는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와 콘서트, 뮤지컬 등 프로그램이 5월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우선 비교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노인층을 위한 ‘ACC양반극장’이 찾아온다.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정보원 B3 극장3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이다. 부산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 세대’를 조명하는 작품으로, 2015년 개봉 당시 1426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큰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등이 출연한다.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 혹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냈던 추억과 가슴 따뜻해지는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화 ‘국제시장’ 스틸컷



‘천개의 파랑’

특히 ACC양반극장은 노인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영화상영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3월부터 9월까지 격월로 진행된다. 관람료 무료, 선착순 자유관람.

ACC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잡은 ‘브런치 콘서트’도 이어진다. 오는 28일 오전 11시,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오르는 팀은 바로 ‘블랙토 무용단’. ‘댄싱9’, ‘스테이지 파이터’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안무가 이루다가 이끄는 무용단으로, 강렬한 미장센과 감각적인 영상, 대중적인 안무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팀이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동물, 로봇, 인간 등 서로 다른 존재들이 경계를 넘어 마음을 나누고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자리에서 싹트는 희망과 따뜻한 위로를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풀어낸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예술을 통해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 70회 호남예술제 입상자-국악

〈심사위원〉 서담 (전남도립대 교수) 박승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1 하서율(광주송원초5) ◇ 기악(피리) 초등부 5.6학년 ▲ 은상 1 박준서(여도초6)	◇ 아쟁 산조 단체 초등부 ▲ 동상 1 강승아 외 2(여도초5)
◇ 가야금 산조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1 김현준(광주살레시오초5)	◇ 가야금 병창 단체 초등부 ▲ 금상 1 조현서 외 2(광주송원초2-5) ▲ 은상 2 김류연 외 11(신암초3-5)	◇ 타악 단체 초등부 ▲ 동상 1 박재혁 외 7(여도초3-5)
◇ 가야금 병창 초등부 1.2학년 ▲ 동상 1 김하니(광주송원초2)	◇ 해금 산조 단체 초등부 ▲ 은상 1 김재아 외 7(여도초4-6)	◇ 관현악 합주 초등부 ▲ 금상 1 정에서 외 26(여도초3-6)
◇ 가야금 병창 초등부 5.6학년 ▲ 은상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봄빛 선율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24일 시청·31일 문빈정사 야외 공연

아이들의 꿈의 연주가 시민들에게 기쁨의 선율을 전한다.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4일과 31일 ‘꿈의 향연’ 오케스트라 야외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오케스트라 15주년을 맞아 전국 41개 기관의 단원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며 꿈과 희망,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다.

광주 공연 주제는 ‘우리 광주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는 무등산이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음악 선율을 전한다.

먼저 24일 오후 5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본무대에서 열리는 ‘제60회 광주시민의날’ 축하 공연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광산’과 꿈의 무용단 14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반짝이는 추억을 선사한다.

이어서 31일 오후 5시 30분에는 무등산 문빈정사 맞은편에서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와함

께하는 ‘무등산 숲속 음악제’가 펼쳐진다. 무등산 지킴이, 국립공원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여유롭게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제에서는 5·18 기념주년을 맞아 ‘임을 위한 행진곡’, ‘상록수’는 물론, 어린이를 위한 디즈니 멜로디와 도레미송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남구문화회관 서영란 팀장은 “이번 공연이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음악적 성장의 무대가 되고, 광주 시민들에게도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13년 차를 맞은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는 관내 초·중학생이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등 9개 파트로 활동 중이며, 음악감독과 강사를 포함해 총 71명이 함께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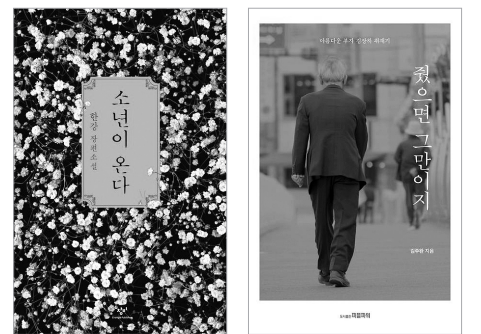
출판인들이 차기 대통령에 원하는 책은?

한국출판인회의, ‘졌으면 그만이지’·‘소년이 온다’ 최다 추천

어른 김장하의 삶을 취재해 담은 김주완의 ‘졌으면 그만이지’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출판인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원하는 책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지도자의 독서와 사유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바란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출판사들은 시의성, 공공성, 우수성을 기준 삼아 모두 204종의 추천 양서를 모았다. 그 결과, 어른 김장하의 삶을 취재해 담은 김주완의 ‘졌으면 그만이지’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또한 강지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넥서스’, 스티븐 레비츠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유시



민 ‘국가란 무엇인가’·‘나의 한국현대사’도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고 출판인회의는 전했다.

출판인회의는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바란다’ 웹책자와 ‘책 읽는 민주사회를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제!”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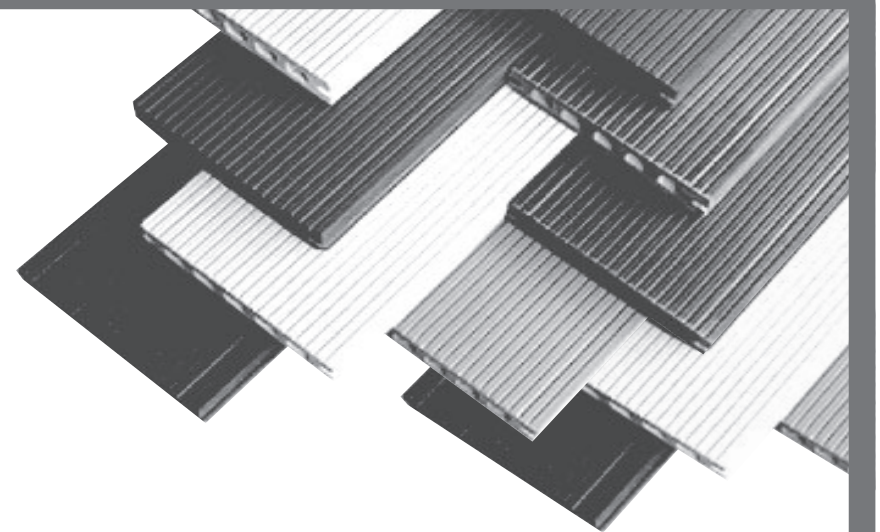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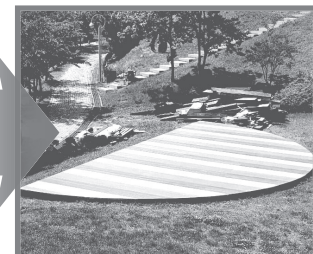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